



광주기독병원, 장애인기관에 기부물품 전달

광주기독병원은 최근 유관기관과 협력해 광주시 각 구별로 5개 장애인 기관에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사진)

1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수검인증 이벤트'와 연계해 이뤄졌으며, 이벤트 기간 동안 광주시 장애인들이 국가건강검진을 완료하면 광주 장애인 보건의료협회의체가 기부금을 적립해 기부물품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기독병원을 포함한 주요 참여기관들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을 촉진하고,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취약시설 장애인들에게는 기부물품을 전달하여 더 큰 의미를 더했다.

광주기독병원 관계자는 "이번 기부가 장애인들의 건강검진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의회, 대학생 모의의회 본회의 개최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조선대학교·전남대학교와 공동으로 대학생 모의의회 본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이날 본회의에는 대학생 모의의회 의원들과 시의회 서용규 제1부위원장, 조선대학교 김춘성 총장, 강수정 정치외교학과장 등이 참석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춘성 총장은 대학생 모의의회 의원들에게 격려의 말과 함께 수료증을 수여했다.

서용규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모의의회에서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광주 청년 정치의 미래를 이끌어 갈 여러분들을 응원한다"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서인준 모의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주를 위해"라는 한 마음으로 모의의회를 함께한 의원님들 덕에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 청년 정치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성현 기자

광주신세계안과, 스마일라식 8만례 달성



광주신세계안과(대표원장 김재봉·사진)는 올 초 7만례 인증 이후 반년 만에 총 8만례 수술을 달성했다고 1일 전했다.

광주신세계안과에 따르면 스마일라식은 전 세계적으로 800만안 이상 집도 된 시력교정 수술로, 국내에서도 100만 안을 돌파한 수술로 8만안이라는 숫자는 전국적으로도 단일 안과 기준으로 또 한번의 이례적인 성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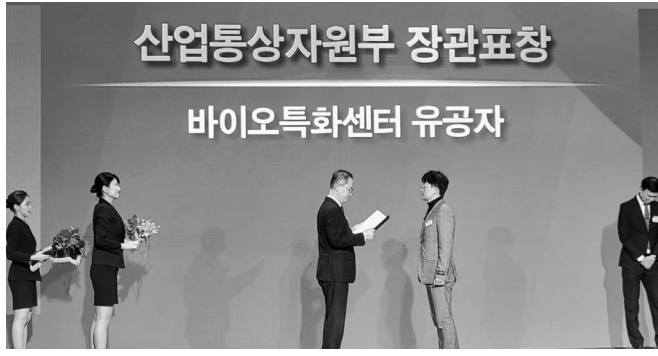
스마일라식은 기존의 라식과 라섹의 장점을 더한 시력교정술로 1000조분의 1초 단위로 조사되는 레이저를 사용해 1~2mm 정도의 미세 절개를 통해 시력교정량만큼 각막 실질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특히 의료진이 각막 실질을 직접 꺼내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 수술이라 숙련된 집도사의 노하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재봉 광주신세계안과 대표원장은 독일 자이스 본사에서 2019년 전국 최초 '리딩스마일센터' 감사패와 'Best Skilled Surgeon in SMILE' 상을 수여 받기도 했다.

광주신세계안과는 기존 스마일라식을 진행했던 비주맥스 500보다 업그레이드된 장비인 비주맥스 800을 사용하는 스마일프로를 도입해 성공적인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일프로는 레이저 조사 시간이 10초 내로, 기존 스마일라식보다 3배 이상 단축된 레이저 조사 시간 만큼 석션로스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노병하 기자



광주TP 메디헬스케어센터, 산자부 장관상

광주테크노파크 메디헬스케어센터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2024년 바이오산업의 날'에서 지역바이오산업 진흥 및 기업 경쟁력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바이오센터에 선정돼 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사진)

메디헬스케어센터는 올해 산자부의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과제인 '골대체용합의료기기 실증기반구축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으로 치과, 정형외과, 안과 및 기능성화장품 사업까지 기업 지원을 위해 10개가 넘는 사업을 지원하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았다.

지난 2002년 당시 광주지역 의료산업은 매출액 2억원, 고용인원 22명, 2개사에 불과했던 관련 기업이 광주테크노파크 타이타늄특수합금센터로 시작으로 현재 메디헬스케어센터가 의료산업의 성장을 위해 꾸준히 기업을 육성해 현재는 치과, 정형외과, 안과, 바이오, 기능성화장품 등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시, 여성폭력 추방 민·관·경 합동 캠페인

광주시는 '2024년 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25일-12월1일)'을 맞아 지난달 29일 첨단지구 LC타워 만남의 광장에서 '우리의 관심으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상'을 주제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에는 광주시, 광주자치경찰위원회, 광주경찰청, 광주시교육청, 광주여성가족재단,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협의회,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YWCA, 민관협치협의회여성분과위원회 등 민·관·경 합동으로 80여명의 시민과 관련기관이 참여했다.

캠페인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스토킹 피해,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참여형 홍보부스를 마련,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노병하 기자



이광신·박성관·오세진 소방장, 1계급 특진

광주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관 3명이 1계급 특별승진했다. (사진)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북부소방서 이광신 소방장, 서부소방서 박성관 소방장, 광산소방서 오세진 소방장 등 3명을 특별승진,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 3명은 재난현장 활동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성과를 보여 1계급 특진,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승진했다. 특별승진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소방청장 표창과 함께 주어지는 수상 특전으로,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평가받는다. 김문용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특별승진한 3명의 소방관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안전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인사

금호건설 △전무 양기승 △상무 고중길·김찬식·김태우·유현철·이경만·이현수 △상무대우 강대식·김창영·백승표·이재열

금호익스프레스 △상무 홍대영 KG △상무 윤영돈

월곡초 진누라 학생,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대상

월곡초등학교진누라(10·사진)양이 최근 서울 LG사이언스파크 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2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진누라양(4학년)은 월곡초등학교 교내 이중언어말하기 대회에서 금상을, 광주시교육청 주관 대회에서 은상을 차지하며 전국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다.

특히 이번 대회를 앞두고 2학기 동안 매일 수십 번씩 발표를 연습하며 준비했다.

전국대회에서는 전국 시·도 교육청 대표로 나선 초등부 27명과 중등부 25명 등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52명의 학생이 한국어·러시아어·몽골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 등 16개 언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하며 경쟁을 벌였다.



진 양은 대회에서 한국어, 우즈베크어로 지난 겨울 가족과 함께 다녀온 '즐거웠던 여수 여행이야기'를 소개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진누라양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통해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다"며 "나를 다시 되돌아보는 즐거운 경험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월곡초등학교 이영심 교장은 "학생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길 바란다"며 "다문화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유병재, '러브캐처4' 이유정과 열애 인정... 9세 연하

방송인 유병재(36)가 9세 연하의 여친구 이유정과 열애를 인정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MBC TV 예능물 '전지적 참견 시점' (전참시)에서 유병재는 열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프닝에서 MC 전현무는 "현재 가장 핫한 사람이 이 곳에 있다"며 유병재의 열애설에 대해 운을 폈다.

전현무는 "유병재씨와 미모의..."라며 "변우석 씨 생일파티가 핫하다. 인 급동까지 올랐다"라고 우선 열애설을 돌려 말했다.

코미디언 흥현희가 "그 파티에 그 분도 오셨는지 물어보라"며 분위기를 이어갔다.

유병재는 '전참시' 출연진들의 취조 같은 질문에 "열애 중인 것이 맞다"라고 공식화했다.



유병재



이유정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정면돌파에도 후폭풍 '계속'

배우 정우성(51·사진)이 16세 연하 모델 문가비(35)에게서 혼외자를 얻은 것과 관련 모든 질책을 안고 가겠다고 정면돌파에 나선 가운데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정우성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최다 관객상 시상자로 배우 황정민과 함께 무대 위에 올라 "서울의 봄"을 관람해 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100만 영화 '서울의 봄'을 통해 수상자도 된 정우성은 특히 "저는 오늘 '서울의 봄'과 함께 했던 모든 관계자들에게 저의 사적인 일이 영화의 오점으로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게 사랑과 기대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 모든 질책을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말하며 울컥한 모습을 보였다.



정우성의 발언 직후 영화계 동료, 선배들이 상당수 모인 객석에선 환호와 함께 응원의 박수가 쏟아졌다.

그런데 일부 누리꾼들은 정우성의 발언에 대한 영화계의 이런 반응에 대해 "환호를 하고 박수까지 칠 일인가? 우리와는 너무 다른 그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온라인에선 "아빠가 아이를 책임지는 건 당연한데 그걸 포장해서 선언하는 상황이 맞나. 양육비뿐 아니라 아빠 노릇도 제대로 해야 한다" 등 부정적인 반응도 나왔다.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사생활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반면 "공개석상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사과한 점은 인정해줘야 한다"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한 선택은 좋았다" 등의 반응도 나온다.

뉴스스